



**WORLD BRIDGE** “좋은 사람 좋은 만남”

SINCE 1997

국제이사의 명가 월드브리지  
**국내이사·해외이사·물류전문기업**

Tel. 021 3700 3645~7 Fax. 021 3700 3224 HP. 133 1193 3967 E-mail. kim101@worldbridge.sh.cn

##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 주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으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최저임금(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결정짓는 요인은 업종, 지역, 연령 세 가지이다. 회사가 대기업인지, 위치가 도시인지, 노동자가 고령자인지 등을 따져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요인 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령별 차등적용을 제외한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논의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오랫동안 적용된 적이 없어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첫 번째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려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업종이 다르면 노동의 강도나 시간 등이 달라지니 보상의 수준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업종마다 요구되는 전

문성과 힘들고 위험한 정도가 다르므로 더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일자리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최저임금이 낮아져 회사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취업의 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더불어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시된다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질 수도 있다. 청년과 노인이 조금 낮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대신, 청년은 경험을 쌓고 노인은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첫 번째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개념을 해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돈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업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한 상황이라면 그 업주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노동의 강도는 측정하기 모호해 임금 책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지역, 연령에 대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직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진다면 빈부격차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직업의 서열이 나뉘어 차별적인 시선을 늘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발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면 수도권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을 확률이 더 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나라의 예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먼저 나라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각 주가 이 임금 보다 높게 다시 책정한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먼저 기준을 정한 후, 각 지역이 이 기준을 참고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한다. 캐나다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특정 직업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청소년, 청년 등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독일, 체코, 네덜란드 등이 있다.

(BISS Y11)

187 0188 7298  
021 5486 8572

손 없는  
날에는!

SINCE 1976  
**범양해운**

포장이사  
핸드케리 화물  
제3국 이주화물  
중국 국내 이사

187 0188 7298  
021 5486 8572

한국에 보내는  
이사는  
팩토리에  
전해봐!

팩토리국제물류  
6270-7581

SEJONG  
**세종국제물류**

상해 시내 · 중국 국내 포장이사  
한국 · 베트남 등 해외 포장이사  
창고보관 서비스

上海市松江区九亭盛龙路429弄30号 021 3467 3177 158 0077 6197  
북경 010 6413 5363 광저우 020 2202 2010 삼천 0755 2359 9865  
천진 022 6617 0929 서안 029 8633 6125 인천(한국) 070 7754 2801

동대문 의류 물류 139 1158 3522

LOGEN  
LOGEN SHIPPING

30년 전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신속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서비스 ▶ 해외이사 선두기업

- 중국 전지역 포장이사
- 물품보관 및 보관이사
- 중국 전지역 내륙운송
-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해외이사
- 귀국이삿짐 소량화물 환영 (상사 주재원 · 유학생)
- 중국 전역 · 해외 항공화물 운송

삼일로젠해운(주) 상해 021 3431 2424 / 137 8899 2424  
www.logenshipping.com

jinyinbaohuo88@hanmail.net